

회계부정방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방향

이명곤* / 장석진**

- | | |
|-------------------------|-----------------------|
| I. 서론 | IV. 회계부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및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회계부정교육의 방향 |
| III. 회계부정의 3요소와 방법 및 징후 | V. 결론 |

개요

최근 발생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우정사업본부 등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회계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회계부정은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회계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회계부정은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회계부정사건의 발생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처벌이 죄에 비해 가볍다고 한다면 회계부정을 수행한 자가 또다시 부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인식 부족은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적발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잠재적 자본시장 참여자인 대학생들이 회계부정의 방지를 위한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회계부정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회계부정의 발생원인과 회계부정의 수행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러한 회계부정방법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뿐만 아니라 각 회계부정의 징후와 방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설문조사결과 대학생들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부정교육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은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할 경우 회계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적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부정교육이 구체적인 회계부정방법에 대한 학습과 더불어 각 회계부정방법의 방지와 적발을 위한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이 회계부정교육의 일차적인 교육대상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회계부정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즉, 본 연구가 제시한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은 정부당국과 대학의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부정교육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본 연구를 시발점으로 다양한 논의와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주제어 : 회계부정, 분식회계, 회계부정교육, 회계부정방법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주저자), E-mail : leemg@hanyang.ac.kr

**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석·박사통합과정(교신저자), E-mail : seokjin3@hanyag.ac.kr

투고일(2012년 5월 11일), 1차수정일(2012년 7월 12일), 2차수정일(2012년 8월 9일), 게재확정일(2012년 9월 7일)

I. 서론

최근 발생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우정사업본부 등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회계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¹⁾ 보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난 4년 동안 저지른 회계부정의 규모가 3조 3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정사업본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 1,800억 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정사업본부의 회계부정사건은 영리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의 회계부정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두 사건은 회계부정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이와 같은 회계부정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하였고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사건이라 할 수 있다.²⁾

회계부정은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이미지, 명성 훼손 등을 초래한다. 또한 간접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Farrell and Healy(2000)는 회계부정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회계부정으로 사라지는 화폐와 자산 금액의 2배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회계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도 회계부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훼손을 통해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다면 회계부정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회계부정사건의 발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등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되었다는 것은 제도적 장치의 미흡이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회계부정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볍다는 것이다. 처벌이 죄에 비해 가볍다고 한다면 회계부정을 수행한 자가 또다시 부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인식 부족은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적발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회계부정에 대해 보다 높은 인식을 갖출수록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며, 적발가능성은 높아질

1)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이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오도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회계기록을 왜곡 표시하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회계부정이란 용어는 분식회계(Window Dressing), 회계사기(Fraudulent Accounting)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2) 국내에서는 1990년대 후반 대우,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등의 회계부정사건이 보고되었다.

것이다.

회계부정의 원인 중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회계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인식 강화는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회계부정의 방지·적발을 위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회계부정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잠재적 자본시장 참여자인 대학생들이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회계부정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회계부정의 발생 원인과 회계부정의 수행방법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본 연구는 구체적인 회계부정의 징후와 방지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회계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부정 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제시한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은 정부당국과 대학의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회계부정의 발생원인과 구체적인 회계부정의 방법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고 제Ⅳ장에서는 설문조사의 설계 및 결과를 보고하고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 결론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회계부정의 정의

먼저 부정과 회계부정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정은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종업원, 제3자 등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기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회계감사준칙 240.4). 부정은 법률적으로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Wells 2010). 첫 번째 부정의 종류는 부패(Corruption)로 부정을 수행하는 자가 기업의 사업상 거래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뇌물의 제공과 수령, 거래처에 부당한 가격청구, 불법적인 선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부정의 종류는 부정을 수행하는 자가 기업의 자산을 횡령(Asset Misappropriation)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정의 수행자가 기업의 현금,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을 절도하거나 오용하는 것 등이 횡령에 포함된다. 세 번째 부정의 종류는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으로 재무제표의 금액이나 공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누락시켜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오도하는 것을 말한다.

Wells(2010)는 미국에서 발생한 부정사건을 분석하고 각 부정의 종류별로 발생빈도와 피해금액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부정의 종류는 자산의 횡령이며, 회계부정의 발생빈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회계부정이 가장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계부정의 피해금액이 자산의 횡령과 부패의 피해금액에 비해 각각 약 30배와 약 16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부정의 발생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의 마련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표 1> 각 부정의 발생빈도와 피해금액³⁾

분 류	발생빈도(%)	피해금액의 중위수(\$)
자산의 횡령(Asset Misappropriation)	86.3	135,000
부패(Corruption)	32.8	250,000
회계부정(Fraudulent Statement)	4.8	4,100,000

2. 외국의 회계교육 실태

미국의 경우 엔론(Enron), 월드컴(WorldCom) 등의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New York 주의 경우 최소 33학점의 회계 관련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경영학과 경제학도 최소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⁴⁾ 우리나라의 경우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를 위한 이수학점으로 회계관련 과목과 경영학 및 경

3) 일부 부정사건은 두 가지 이상의 부정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빈도의 합이 100을 넘고 있다. <표 1>은 Wells(2010)가 제시한 결과를 재인용한 것이다.

4) 미국의 각 주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이 차이가 있어, 본 연구는 New York 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학 과목에서 각각 12학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urtis(2008)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대학은 회계부정 및 경제범죄를 방지·적발하기 위해 해당 학과를 개설하고 회계부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학과에서는 기본적인 회계지식과 경제학, 관련 법률 등 회계부정과 경제범죄를 방지·적발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교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ACFE)는 1988년부터 회계부정을 조사하는 전문가인 회계부정검토사(Certified Fraud Examiners)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민간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황명철 등 2008).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민간단체, 대학 등이 회계부정의 방지와 적발을 위한 교육과 자격증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경우 단일의 회계전문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회계전문기관이 각 기관마다 회계전문가를 교육하고 육성하여 회계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된 회계전문가를 칙허회계사(Chartered Accountant)라 명칭하고 있다. 칙허회계사가 되기 위해선 관련 시험을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실무경험이 회계교육을 받고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에 취업한 후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회계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즉, 칙허회계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취업을 하고 회계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며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영국의 경우 취업을 통한 실무적 경험과 교육을 통한 이론의 조화를 갖춘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시험을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배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영국의 상황은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공인회계사시험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 별도의 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공인회계사 지원자들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만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회계사에게 요구되는 IT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전문직 윤리 등은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회계전문대학원이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양성하는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회계부정의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교육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국과 같이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갖춘 공인회계사를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회계전문대학원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는 일본과 같이 공인회계사 시험 위주로 회계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회계전문대학원의 설립은 많은 시간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 회계부정을 방지하

고 적발하기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회계부정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과 같이 회계부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수행된 회계부정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을 통해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회계부정에 대한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킴으로써 회계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실제로 발생한 회계부정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회계부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자는 연구들이 존재한다.⁵⁾

먼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명철 등(2008)은 대학교육이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임을 착안하여,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과 유용성,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에서 회계부정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장애요인 등을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황명철 등(2008)은 대학에서의 회계부정교육이 회계부정의 적발이나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설문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회계부정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학교당국의 관심과 지원 부족,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Peterson(2003)은 대학생들에게 회계부정교육을 하는 것이 대학생과 고용자인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Peterson(2003)은 대학생들이 감사증거의 확보, 인터뷰 방법, 공공기록 조사 등과 같은 구체적인 회계부정의 적발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면 컨설턴트, 감사인, 부정적발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갖추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회계부정교육은 교육대상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용자인 기업에게도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고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Curtis(2008)는 실제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회계부정교육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Curtis(2008)는 대학에서 회계부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관련 법규 및 경제학적인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교육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5) 회계윤리란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인간적 행동의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을 구분해주는 판단기준 및 도덕적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철학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최현돌 등 2005). 따라서 회계윤리교육은 윤리적 사고와 행동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회계부정교육은 윤리적 사고와 행동뿐만 아니라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위한 적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즉, 회계부정교육이란 회계부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Curtis 2008).

실제로 발생한 회계부정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회계부정교육의 자료로 활용하자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명곤과 이화득(2004)은 대우, SK글로벌 등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대규모 회계부정사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회계실패의 일반적 혹은 개별적 원인을 네 가지 관점(경영환경·회계환경·감사환경·감리제도)에 따라 분석을 하고, 회계부정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명곤과 이화득(2004)은 회계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및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건전한 사회적 감시활동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명곤과 이화득(2004)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회계실무자, 감사인, 감독기관 등의 높은 윤리의식 확보와 더불어 이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노준화와 배길수(2004)도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발생한 대규모 회계부정 사례의 주요 내용을 파악한 후 회계부정의 원인을 경영환경, 회계환경, 감사환경 및 감리환경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노준화와 배길수(2004)는 기업내부 회계인력의 낮은 전문지식, 회계부정이 만연하여 이종장부의 존재나 공공연한 회계장부의 조작에 대해서도 별다른 책임이 따르지 않는 윤리적 및 법적인 환경, 내부통제의 부재 등을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권선국 등(2005)은 회계윤리교육의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외 회계부정사례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권선국 등(2005)은 회계부정에 대한 교육이 회계부정의 예방에 기여하고 회계의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권선국 등(2005)은 회계부정의 의도와 회계부정이 기업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관련자들에게 대한 책임에 대한 질문과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아울러 질문에 대한 주요 토론 쟁점과 지침 및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강선민(2010)은 실제 발생한 abc반도체의 회계부정사례를 분석하였다. 강선민(2010)은 실제 회계부정의 사례가 회계부정과 관련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강선민(2010)이 살펴본 abc반도체의 회계부정사례는 비용취소 등으로 건설중인 자산을 가공계상한 후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하여 가공의 유형자산을 계상하고 이후 감가상각비 또는 자산감액손실 등으로 축소·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Rufus and Hahn(2011)도 실제 발생한 회계부정사례를 분석하였다. Rufus and Hahn(2011)는 실제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한 동기, 기회, 회계부정행위의 합리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회계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발견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그

6) 이명곤 등(2011)은 회계감사교육이 윤리적 사고와 윤리적 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회계부정교육은 회계부정의 방지와 적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러나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회계부정이 유사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계부정방법에 대한 학습은 회계부정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 수행된 회계부정방법에 대한 종합적 정리와 함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부정교육에서 회계부정방법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진 회계부정방법을 분석하고, 잠재적 자본시장의 참여자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각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회계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⁷⁾ 본 연구가 제시하는 회계부정의 방법과 방지대책은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회계부정교육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Ⅲ. 회계부정의 3요소와 방법 및 징후

1. 회계부정의 3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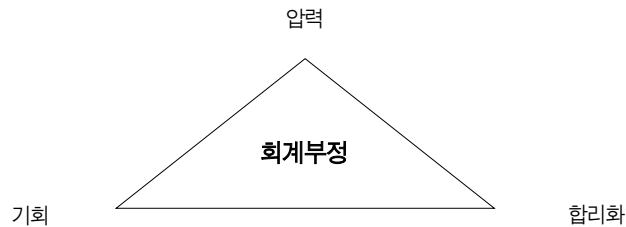
회계부정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 Cressey(1953)이 제안한 부정의 3요소는 회계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즉, 회계부정의 3요소는 회계부정을 수행하게 만드는 압력이나 동기, 회계부정의 기회, 회계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능력으로 구성된다.

압력은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달성 가능한 목표가 설정된 경우 압력은 창의력,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Healy and Palepu 2001).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은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승진, 보상, 해고 등과 같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회계부정의 유혹이 발생한다. 즉, 압력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강압적으로만 작용한다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회계부정의 대표적인 동기로는 기업의 보고이익을 내부적 기대 또는 외부적 기대와 일치시키려는 유인과 기업의 악화된 재무상태를 감추려는 욕구, 주가상승에 대한 욕구,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자 보상, 손실보고의 회피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회계부정의 동기가 경영자 이

7)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대상과 교육의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은 회계부정교육이 대학교육을 통해 학습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Curtis 2008; 황명철 등 2008).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익조정의 동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Beneish 2008; 노준화와 배길수 2004; 이재성 2007).

<그림 1> 회계부정의 3요소



압력이나 유인이 극대화되더라도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계부정은 발생할 수 없다. 회계부정의 기회는 기업의 내부통제가 취약하거나 부정행위자가 회계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발생한다. 여기서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회계정보가 조작이나 부정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행위자가 회계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부정행위자가 신뢰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과 회계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독립적인 거래, 비정상적인 중요한 관계자 거래, 주관적이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회계부정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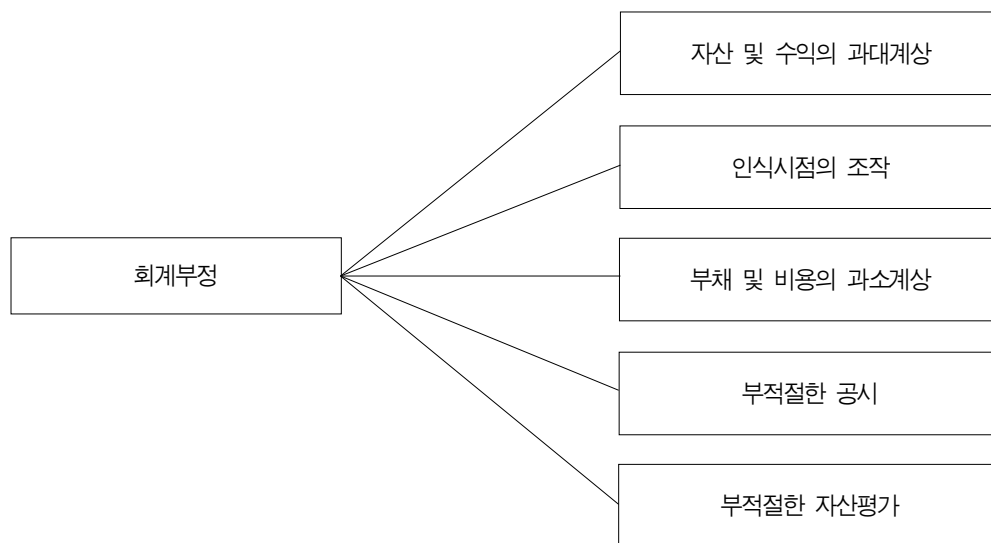
회계부정의 합리화는 ‘이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이 행위는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등과 같이 회계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화는 초기에 회계부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허용될만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릴 정도로 악화된다. 하지만 기업의 직원들이 회계부정행위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업의 고위경영진들이 엄격한 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보여준다면, 회계부정행위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Wells 2010).

2. 회계부정의 방법 및 징후

지금까지 보고된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 사례와 회계부정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회계부정에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회계부정방법은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Asset/Revenue Overstatements)이다. 두 번째는 인식시점의

조작(Timing Differences)으로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시점을 조작하는 것이다. 회계부정의 세 번째 방법은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Concealed Liabilities and Expenses)이며, 네 번째 방법은 허위 및 부적합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Improper Disclosures)이다. 마지막 회계부정의 방법은 부적절한 자산평가(Improper Asset Valuations)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무형자산 등과 같은 자산을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 2> 회계부정의 방법



가.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미국의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이 2010년에 작성한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에 따르면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 중 약 50%가 자산과 수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자산을 과대로 계상하면 자본도 과대계상되기 때문에, 자산의 과대계상을 통한 회계부정은 기업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기업은 자산의 과대계상방법으로 제품의 제조활동이나 판매된 재고자산을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은폐하는 부정을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매출 시 실제 매출된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보고함으로써 해당 수량만큼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기말 재고자산은 과대 계상하는 것이다. 또한 적송품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자산의 과대계상이 이루어진다. 강선민(2010)이 제시한 회계부정사례에서는 비용의 지출을 유형자산인 건설중인자산으로 가공 계상한 이후에 이를 또다시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하여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즉, 비용의 지출을 자본화함으로써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수익의 과대계상은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으로 이어짐으로서 기업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⁸⁾ 회계원칙 상 매출은 수익의 획득과정이 완료되고 교환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나 재화가 제공되기 전에 매출을 계상한다거나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매출을 계상하는 회계부정방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차입금을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 투자수익을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인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 등과 같이 매출을 부적절하게 인식하는 방법부터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Fictitious Revenue)까지 다양하다. 특히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은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는 속임수라는 점에서 수익의 과대계상 방법 중 가장 부정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해외거래처에 허위로 수출을 한 것으로 계상하고 가공의 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방법과 특수 관계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납품하기 전에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이 회계부정에 사용되고 있다.

회계의 원칙 상 수익이 과대 계상되면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즉, 자산의 과대계상과 수익의 과대계상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동종업종에 비해 매출채권의 비율이 높은가, 변동원인이 무엇인가, 회수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등과 같이 실제 자료의 확인을 통한 검증 절차인 분석적 절차(Analytical Procedures)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전기 대비 매출액의 변화율을 파악하고 관련 항목(매출원가, 매입액 등)의 추세분석을 통해 회계부정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에 비해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매출원가가 유사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인식시점의 조작

회계원칙 상 판매자가 매출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재화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로 완전히 이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익 또는 비용의 인식시점을 부적절하게 조작함으로써 보고이익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하는 방법이 회계부정에 사용되고 있다. 재화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로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Carmichael(1999)은 이러한 수익 또는 비용의 인식시점조작을 통한 회계부정을 ‘속임수

8) 여기서 언급된 수익은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인식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회계(Hocus-Pocus Accounting)’라고 명칭하고 있다.

인식시점의 조작을 통한 회계부정은 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기 위해 수행된다. 수익은 조기에 인식하고 비용은 미래로 이연시킴으로서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나 재화가 제공되기 전에 매출액을 계상하면, 수익은 증가하고 선수금은 감소한다. 즉, 수익의 조기인식이 부채의 감소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구매자의 무조건적 승낙이 있기 전 또는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매출을 계상하는 방법은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수익의 인식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익의 인식시점 조작뿐만 아니라 비용의 인식시점 조작도 회계부정에 사용되는데, 조정 가능한 비용을 미래로 이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때로는 인식시점의 조작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당기순이익이 재무 분석가의 예측치를 훨씬 초과하는 것과 같이 예상보다 당기 실적이 양호한 경우 회계부정은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즉, 현재의 수익을 미래로 이연시키거나 미래의 비용을 조기에 인식하는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수행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충당금 설정 등을 통해 현재의 수익을 미래의 수익으로 이연시키거나, 선급비용을 비용으로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수익의 인식시점조작을 통한 회계부정이 수행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다.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제공받지 않은 재화에 대한 대금을 미리 지급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익을 조기에 인식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하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차이가 크다고 한다면 수익의 조기인식을 통한 회계부정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거래의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을 조기에 인식한다면, 장기매출채권의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은 수익을 인식한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출채권에서 장기매출채권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1년 전에 수익을 인식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 장기매출채권의 비중 등이 수익의 인식시점을 통한 회계부정의 징후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회계원칙 상 기업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의무로 인해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조건이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비용의 과소계상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회계부정에 자주 사용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은 당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과대계상의 방향으로 즉,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계부정이 수행될 수도 있으나, 부채는 과소계상하려는 방향으로만 회계부정이 수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인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을 통한 회계부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선수금을 수익으로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은 인식시점의 조작뿐만 아니라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효과를 가진다. 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등과 같은 부채의 과소계상도 자주 이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사채시장에서의 차입과 관계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재무상태표에 공시하지 않는 방법(부외부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감시가 취약한 대출처 등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우그룹과 미국의 엔론(Enron)은 부외부채를 과소 계상하여 자본시장의 혼란을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회계부정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기업이 미래에 변제해야 하는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이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부채는 과소 계상될 수밖에 없다.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방법의 변경을 통한 부채 과소계상방법도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연금이나 기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몇 가지 가정만 변경하더라도 관련부채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계장치를 리스하는 기업의 경우 잔존가치나 이자율에 대한 가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채나 비용을 과소 계상할 수 있다. 영업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자본화할 경우 비용의 과소계상뿐만 아니라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효과가 있다. 감가상각회계처리 변경도 대표적인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방법의 변경 중 하나이다.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면 비용(감가상각비)이 과소 계상된다.

최근 들어 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이용한 회계부정방법이 수행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이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스톡옵션의 실제비용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하지 않고 주식으로 공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됨으로서 당기순이익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부채는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을 통한 회계부정이 수행되면 부채의 지급과 관련된 항목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외부채의 경우 차입금의 내역과

실제 기업이 지급한 내역의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당좌예금 지급기록에 대한 조회를 통해 결제된 기업어음이 실제 기업의 장부에 존재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부외부채의 존재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자비용계정의 검토를 통해 누락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내역이 존재하는지 조사함으로써 부외부채가 존재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의 변경을 통한 회계부정은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검토가 동 회계부정의 적발에 유용한 방법이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비용과 부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퇴직급여충당부채 등과 같은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방법의 변경은 주석에 관련 사항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주석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가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을 통한 회계부정을 적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 부적절한 공시

부적절한 공시를 통한 회계부정은 계정과목의 변경을 통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공시누락 등을 의미한다. 최근 발생한 우정사업본부의 회계부정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우정사업본부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실제로 처분 시에만 인식할 수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을 처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식하는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회계부정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을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면 당기순이익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이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계정의 분류를 부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부적절한 공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은 미 실현이익이지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실현이익이라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투자한 금융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당기순이

9) 매일경제신문 '정부기관 우정사업본부도 분식회계 3년간 1,800억원 규모-적자를 흑자로 둔갑' 2012년 1월 16일자 기사.

익에는 변화가 없다. 만약 평가손실이 예상된다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다. 이 밖에도 대표이사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또는 횡령자금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상의 계정과목으로 은폐하는 방법과 판매비와 관리비 등 당기비용 발생분을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이 부적절한 공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적절한 공시를 통한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항목에 대한 분석적 절차가 필요하다. 금융자산 분류의 경우 과거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당기의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인다면 회계부정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출원가가 매출액에 비해 감소하거나 판매비와 관리비가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다면, 관련 비용을 자본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 부적절한 자산평가

회계원칙 상 자산의 가치에 감소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모두 즉시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현재 자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이나 사용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회수가능액보다 높으면 자산은 과대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자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산은 과대 계상되며, 아직 인식하지 않은 손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부적절한 자산의 평가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회계부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부적절한 자산평가를 통한 회계부정방법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 진부화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과소계상, 시장가치가 하락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의 미계상 등이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자산의 공정가치평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자산평가를 통한 회계부정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절한 자산평가를 통한 회계부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충당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비해 재고자산 대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함으로써 비용의 과소계상과 자산의 과대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면 부적절한 자산평가를 통한 회계부정이 수행되었을 수 있다.

<표 2> 각 회계부정방법의 대표적인 예

회계부정방법	대표적인 예	회계부정의 징후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에 사용되었거나 판매된 재고자산을 계속 보유중인 것으로 은폐 · 위탁받은 타인소유 재고자산(적송품)을 기업의 재고자산으로 계상 · 기타 허위의 재고자산과 기타의 자산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 · 경제적 실체가 없는 매출의 계상 · 차입금을 매출로 계상 · 주문이 없거나 취소된 상품에 대한 허위매출, 선수금 수령을 매출로 계상 · 투자수익을 매출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채권의 성장률이 매출액 성장률에 비해 높다. · 재고자산의 성장률이 매출액, 매출원가, 매입채무의 성장률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 · 비유동자산의 총액이 총자산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
인식시점 조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직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나 재화가 제공되기 전에 매출을 계상 · 주문은 받았으나 인도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매출 인식 · 구매자의 무조건적 승낙이 있기 전 또는 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매출을 계상 · 조립 중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매출로 인식 · 조정 가능한 비용을 미래로 이연시키거나 당기에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크다. · 매출채권에서 장기매출채권의 비중이 증가한다. · 선수금은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이 증가한다.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관련 부채를 계상하지 않음 · 감시가 취약한 대출처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누락 (예: 대표이사 명의의 차입, 사채시장, 관계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 ·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업이 납입할 부채의 과소계상 · 보증 또는 총당금 등 우발부채의 미인식 또는 저평가 ·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방법의 변경을 통한 부채의 과소계상 · 영업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자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좌예금 지급기록과 결재된 기업어음 간에 일치되지 않는다. · 이자비용에 누락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내역이 존재한다. · 주식에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 방법의 변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
부적절한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을 통해 수익을 창조 · 대표이사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또는 횡령자금을 정상적인 영업거래상의 계정과목으로 은폐 · 판매비와 관리비 등 당기비용 발생분을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의 비중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인다. · 매출원가가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다.
부적절한 자산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부화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과소계상 ·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 · 고평가된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 감액손실 미계상 등 · 시가가 하락한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미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고자산 대비 재고자산평가 총당금의 비중이 감소한다. · 매출채권 대비 대손충당금의 비중이 감소한다.

<표 2>는 이상에서 살펴본 각각의 회계부정방법과 징후를 표로 요약한 것이다. 회계 부정은 결국 기업의 재무상태가 건전하며, 경영성과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 수행된다. 즉, 기업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양호한 것처럼 보이려는 의도

에서 회계부정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기대보다 당기의 실적이 양호한 경우 이러한 경영성과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회계부정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IV. 회계부정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및 회계부정교육의 방향

앞의 제Ⅲ장에서는 회계부정의 정의와 구체적인 회계부정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회계부정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인 대학생들이 회계부정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살펴본다. 우선 대학생들이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구체적인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다. 이와 같은 대학생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시각은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회계부정교육의 직접적인 교육대상인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즉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연구표본의 구성

분류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합계
남	137 (60.09%)	13 (5.70%)	150 (65.79%)
여	73 (32.02%)	5 (2.19%)	78 (34.21%)
합계	210 (92.11%)	18 (7.89%)	228 (100%)

1)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인원이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학부 재학생은 경영대학에서 재무회계과목과 재무제표분석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며,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에서 회계감사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임.

1. 설문대상과 설문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의 경우 재무회계과목과 재무제표분석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대학원생의 경우 회계감사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항목 미기재, 이중기

재 등을 이유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설문지 중 각각 27부와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하였다. 총 25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가능한 228부(약 88.7%)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확보하였다. <표 3>은 설문지 배부와 분석표본의 선정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2. 설문결과

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

먼저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하 ‘대학생’)의 회계부정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세 가지 문항을 작성하고 각 문항에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4>는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첫 번째 문항인 ‘대학의 회계교육이 회계부정을 방지하는데 충분한가?’에 대해 응답자 중 134명(약 58.77%)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충분하다는 응답자는 35명(약 15.35%)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자수에 비해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계학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문이라는 이유로 현재 대학의 회계교육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권찬태 등 2003). 또한 대학들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배출을 목적으로 회계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회계부정교육이 소홀해지고 있다(주인기 등 2008). 즉,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정규 회계학교과과정에서 회계부정교육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¹⁰⁾ 따라서 <표 4>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¹¹⁾

두 번째 문항인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75%인 17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발생한 부산저축은행그룹과 우정사업본부 등의 회계부정사건이 대학생들의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문항인 ‘회계부정교육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81명(약 79.39%)은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대학생들의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할 의향과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할 경우 회계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항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10) 대부분의 대학에서 회계감사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회계부정교육에 초점을 두고 교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시험 준비에 초점을 두고 있다.

11) <표 4>의 설문문항은 황명철 등(2008)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황명철 등(2008)은 대학생그룹과 실무자그룹(상장 및 등록기업 회계실무자), 전문가그룹(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을 대상으로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황명철 등(2008)과 동일하게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황명철 등(2008)과 차이가 있다.

를 살펴보면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하려는 대학생들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하겠다고 응답한 대학생은 228명 중 139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약 60.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계부정교육이 회계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약 77.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대학생의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4>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

설문문항 점수	대학의 회계교육이 회계부정을 방지하는데 충분인가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인가	회계부정교육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인가
1(그렇지 않다)	24(10.53%)	5(2.19%)	3(1.32%)
2	55(24.12%)	4(1.75%)	3(1.32%)
3	55(24.12%)	15(6.58%)	10(4.39%)
4(보통이다)	59(25.88%)	33(14.47%)	31(13.60%)
5	29(12.72%)	57(25.00%)	58(25.44%)
6	4(1.75%)	61(26.75%)	70(30.70%)
7(그렇다)	2(0.88%)	53(23.25%)	53(23.25%)
합계	228	228	228
평균	3.149	5.316	5.456
t-값	-9.82***	13.97***	16.98***
p-값	<.0001	<.0001	<.0001

1)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인원이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t-값은 평균점수와 4점과의 차이분석을 통해 계산됨.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회계부정교육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회계부정교육의 직접적인 대상인 대학생들이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할 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이 회계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데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되어야 할 내용을 무엇인가? 즉,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교육되어야 할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5> 회계부정교육의 수강 의향조사

설문문항 점수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면 수강할 의향이 있는가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할 경우 회계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1(그렇지 않다)	6(2.63%)	4(1.75%)
2	13(5.70%)	5(2.19%)
3	18(7.89%)	8(3.51%)
4(보통이다)	52(22.81%)	35(15.35%)
5	53(23.25%)	47(20.61%)
6	45(19.74%)	56(24.56%)
7(그렇다)	41(17.98%)	73(32.02%)
합계	228	228
평균	4.895	5.526
t-값	8.73***	16.18***
p-값	<.0001	<.0001

1)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인원이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t-값은 평균점수와 4점과의 차이분석을 통해 계산됨.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나.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 정도를 리커트 7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설문을 작성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한다. <표 6>을 살펴보면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 평균은 5.171로 중앙값인 4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제Ⅲ장에서 살펴본 구체적인 각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설문을 작성하였다. 조사결과 모든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은 중앙값인 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이 자산을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회계부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생가능성이 가장 낮은 회계부정방법은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으로 나타났다. <표 6>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이 회계부정을 수행할 가능성은 높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 회계부정방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식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을 개별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응답자들이 하나 이상의 회계부정방법이 회계부정에 사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표 6>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

설문문항 점수	회계부정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조작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
1(매우 낮다)	1(0.44%)	0(0%)	1(0.44%)	3(1.32%)	3(1.32%)	0(0%)
2	2(0.88%)	7(3.07%)	4(1.75%)	7(3.07%)	9(3.95%)	8(3.51%)
3	14(6.14%)	12(5.26%)	16(7.02%)	19(8.33%)	29(12.72%)	15(6.58%)
4(보통이다)	32(14.04%)	29(12.72%)	41(17.98%)	44(19.30%)	45(19.74%)	37(16.23%)
5	85(37.28%)	99(43.42%)	88(38.60%)	91(39.91%)	71(31.14%)	76(33.33%)
6	79(34.65%)	68(29.82%)	56(24.56%)	50(21.93%)	52(22.81%)	66(28.95%)
7(매우 높다)	15(6.58%)	13(5.70%)	22(9.65%)	14(6.14%)	19(8.33%)	26(11.40%)
합계	228	228	228	228	228	228
평균	5.171	5.088	5.048	4.838	4.772	5.118
t-값	16.71***	15.40***	13.76***	10.48***	8.71***	13.88***
p-값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 1)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인원이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 2) t-값은 평균점수와 4점과의 차이분석을 통해 계산됨.
-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7>은 대학생들이 각 회계부정방법의 적발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첫 번째 회계부정방법인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적발가능성에 대해 73명은 높다고 응답한 반면 91명은 낮다고 응답하였다. 평균값은 3.890을 보였으나 중앙값인 4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회계부정방법 적발가능성은 중앙값인 4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을 통한 회계부정의 적발가능성은 4.158의 평균을 보임으로써 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과 <표 7>의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발가능성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적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부정교육이 각 회계부정방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

12) 각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 간의 차이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표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든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이 적발가능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회계부정에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학습과 함께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회계부정의 징후와 적발방법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³⁾

<표 7> 회계부정의 적발가능성

설문문항 점수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조작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
1(매우 낮다)	5(2.19%)	5(2.19%)	4(1.75%)	4(1.75%)	2(0.88%)
2	25(10.96%)	27(11.84%)	21(9.21%)	20(8.77%)	21(9.21%)
3	61(26.75%)	60(26.32%)	54(23.68%)	48(21.05%)	63(27.63%)
4(보통이다)	64(28.07%)	67(29.39%)	69(30.26%)	68(29.82%)	67(29.39%)
5	48(21.05%)	45(19.74%)	52(22.81%)	47(20.61%)	48(21.05%)
6	22(9.65%)	16(7.02%)	23(10.09%)	34(14.91%)	24(10.53%)
7(매우 높다)	3(1.32%)	8(3.51%)	5(2.19%)	7(3.07%)	3(1.32%)
합계	228	228	228	228	228
평균	3.890	3.877	4.022	4.158	3.974
t-값	-1.30	-1.41	0.26	1.79*	-0.33
p-값	0.1937	0.1588	0.7936	0.0754	0.7442

1)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인원이 총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t-값은 평균점수와 4점과의 차이분석을 통해 계산됨.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다. 회계교육수준에 따른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의 차이

추가적으로 응답자들의 회계교육수준에 따라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회계교육수준에 따라 응답자들의 회계부정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현재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회계교육이 회계부정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회계교육을 통해 회계지식의 습득정도가 높을수록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현재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회계교육이 회계부정을 방지·적발

13)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설문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전공별, 대학(원)별 등에 따라 설문응답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과 적발가능성 인식이 회계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회계부정을 방지·적발하는데 있어 현재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회계교육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비롯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회계부정교육이 신속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8〉 회계교육수준에 따른 회계부정 발생가능성 인식의 차이분석

분류	고취득자(n=45)		저취득자(n=183)		T검정 통계량		Wilcoxon 검정 통계량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t-값	p-값	Z-값	p-값
회계부정	5.200	5	5.164	5	0.20	0.8383	1.061	0.2887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5.133	5	5.077	5	0.32	0.7496	1.102	0.2703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조작	5.333	6	4.978	5	1.87*	0.0634	3.435***	0.0006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5.200	5	4.749	5	2.27**	0.0243	2.876***	0.004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	4.689	5	4.792	5	-0.46	0.6431	-0.045	0.9642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	5.089	5	5.126	5	-0.18	0.8562	1.604	0.1088

- 1) 회계관련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응답자들을 고취득자로 분류하며, 10학점 미만으로 이수한 응답자들은 저취득자로 분류함.
- 2) 각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며, 7점에 가까울수록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먼저 <표 8>에 회계교육수준에 따라 응답자들의 회계부정 발생가능성의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를 제시한다. 대학에서 회계관련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응답자들은 고취득자로 분류하며 10학점 미만으로 이수한 응답자들은 저취득자로 분류하고, 고취득자와 저취득자 집단 간에 회계부정 발생가능성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회계교육수준에 따라 전체적인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 및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를 통한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취득자와 저취득자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조작과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을 통한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9>는 회계교육수준에 따라 응답자들의 회계부정 적발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섯 가지 회계부정방법 중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 조작과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을 통한 회계부정방법의 적발가능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과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를 통한 회계부정방법의 적발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해보면 회계교육수준에 따라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은 다섯 가지 회계부정방법 중 두 가지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회계부정의 적발가능성도 다섯 가지 회계부정방법 중 두 가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회계교육이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적발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현재 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회계교육에 회계부정과 관련된 교육이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9〉 회계교육수준에 따른 회계부정 적발가능성 인식의 차이분석

분류	고취득자(n=45)		저취득자(n=183)		T검정 통계량		Wilcoxon 검정 통계량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t-값	p-값	Z-값	p-값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4.178	4	3.820	4	1.70*	0.0902	-0.067	0.9469
수익 및 비용의 인식시점조작	4.022	4	3.842	4	0.83	0.4089	1.133	0.2572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4.267	4	3.962	4	1.45	0.1476	-0.821	0.4116
부적절한 공시 또는 공시누락	4.200	4	4.148	4	0.24	0.8138	0.772	0.4402
자산의 부적절한 평가	4.444	4	3.858	4	2.95***	0.0035	-1.260	0.2078

1) 회계관련과목을 10학점 이상 이수한 응답자들을 고취득자로 분류하며, 10학점 미만으로 이수한 응답자들은 저취득자로 분류함.

2) 각 문항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며, 7점에 가까울수록 적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3)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회계부정교육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설문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회계부정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을 적발가능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회계부정교육은 회계부정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회계부정이 자본시장의 효율적 운영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시

김으로써 회계부정교육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앞의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살펴본 부정의 종류(자산의 횡령, 부패, 회계부정)와 회계부정의 3요소에 대한 내용이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가상승, 자금 차입조건 완화, 성과급의 획득, 단기 실적의 강조 등이 회계부정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각 회계부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징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인식시점 조작,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부적절한 공시, 부적절한 자산평가 등을 통한 회계부정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각 회계부정방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적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에 비추어볼 때 각 회계부정의 적발가능성이 발생가능성보다 낮다는 것은 회계부정교육이 각 회계부정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이를 방지하고 적발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0>은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표 10>의 사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감리지적 사례도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표 10>에 제시된 회계부정을 회계부정의 3요소를 통한 원인 분석과 회계부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 회계부정의 적발방법 등이 대학생들이 회계부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의 정량적인 검색을 통해 조기에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비교,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의 비중 등은 데이터베이스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추출한 각 기업의 재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비교적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재무제표의 주석은 기업의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방법의 변경을 발견하는데 단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료가 회계부정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회계부정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10> 회계부정의 대표적인 사례

회계부정방법	대표적인 사례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대우그룹, HealthSouth, 기아자동차, 제록스
인식시점 조작	HBO & Co, Tyco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대우그룹, Enron, SK글로벌
부적절한 공시	Apple Computer, WorldCom
부적절한 자산평가	Snapple, GM, Orion Pictures

또한 각 회계부정방법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전문가적 의구심과 비판적 사고를 갖는 자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즉, 기업이 제시한 회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품고 의심할 만한 모순이나 의문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회계부정은 적발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교육은 궁극적으로 회계부정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최근 발생한 부산저축은행그룹, 우정사업본부 등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해 회계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부정교육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회계부정을 주제로 수행된 선행연구들과 과거 회계부정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계부정에 사용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하고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 회계부정방법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대학생들이 회계부정교육의 일차적인 교육대상이라는 점에서 대학생들이 회계부정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것은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들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부정교육이 회계정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대학생들은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회계부정교육을 수강할 경우 회계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은 다섯 가지 회계부정방법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적발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회계부정에 사용되는 자산 및 수익의 과대계상, 인식시점의 조작, 부채 및 비용의 과소계상, 부적절한 공시, 부적절한 자산평가 등의 적발가능성이 발생가능성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부정교육이 구체적인 회계부정방법의 방지와 적발을 위한 방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회계부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회계부정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교육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과 과거 회계부정사건에 사용된 회계부정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계부정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가 제시한 회계부정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당국과 대학의 회계부정교육에 대한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회계부정사건은 회계부정교육의 부재, 제도의 미흡 등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은 회계부정사건의 발생원인 중 회계부정교육의 부재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성에 비추어볼 때 회계부정교육은 회계부정의 발생가능성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회계부정교육의 수행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향후 연구방향은 회계부정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회계부정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 윤리교육 등을 주제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회계부정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많은 논의와 관련 후속 연구들을 기대해본다. 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회계부정교육이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강선민, “abc반도체 분식 사례연구”, 「회계저널」 제19권 제5호, 2010, pp.333-352.
- 권선국·조성표·김도형, “분식회계 예방교육 사례”, 「회계저널」 제14권 제4호, 2005, pp.153-180.
- 권찬태·권기정·김유석, “회계윤리교육 부재의 원인과 개선방향”, 「경영연구」 제18권 제2호, 2003, pp.125-144.
- 노준화·배길수, “회계실패사례 분석 및 회계실패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경영환경, 회계환경, 감사환경 및 감리환경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13권 2호, 2004, pp.155-180.
- 이명곤·이화득, “회계실패의 원인과 해결 방안”, 「회계저널」 제13권 제2호, 2004, pp.181-224.
- 이명곤·장석진·조한석, “회계감사교육이 윤리적 사고와 윤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감사 연구」 제53권 제1호, 2011, pp.1-36.
- 이재성, “부실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8집, 2007, pp.383-410.
- 주인기·송인만·권수영·황이석·심태섭, “회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우리나라 회계교육 강화 방안”,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2008, pp.27-59.
- 최현돌·오준환·황호찬, “회계윤리의 교육과정설계를 위한 방향”, 「회계저널」 제14권 제4호, 2005, pp.121-152.
- 황명철·정길채·박승식, “회계부정 적발교육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1권 제4호, 2008, pp.1621-1642.
- Beneish, M., “Incentives and Penalties Related to Earnings Overstatements that Violate GAAP”, *The Accounting Review* Vol.74 No.4, 1999, pp.425-457.
- Carmichael, D. R., “Hocus-Pocus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ancy* No.1, October, 1999, pp.50-55.
-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2010.
- Cressey, D., “Other Peoples’ Money: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Embezzlement”, *Glencoe, IL, Free Press*, 1953.
- Curtis, G. E., “The Model Curriculum in Fraud and Forensic Accounting and Economic Crime Programs at Utica Colleg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23 No.4,

2008, pp.581-592.

Farrell, R. R. and P. Healy, “White Collar Crime: A Profile of the Perpetrator and an Evaluation of the Responsibilities for Its Prevention and Detection”, *Journal of Forensic Accounting* Vol.1 No.1, 2000, pp.17-34.

Healy, P. and K. Palepu,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Disclosure and the Capital Markets: A Review of Empirical Disclosur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31 No.1-3, 2001, pp.405-440.

Peterson, B. K, “Fraud Education for Accounting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Vol.78 No.5, 2003, pp.263-267.

Rufus, R. J. and W. Hahn, “Mountain State Sporting Goods: A Case of Fraud? A Case Study in Fraud Examination”,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Vol.26 No.1, 2011, pp.201-217.

The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 “Report to the Nations on Occupational Fraud and Abuse”, 2010.

Wells, J. T, “Principles of Fraud Examination”, *John Wiley & Sons, Inc*, 2010.

The Necessity for Education to Deter Accounting Fraud and the Directions of Accounting Fraud Education

Myung-Gon Lee* / Seok-Jin Chang**

ABSTRACT

The recent accounting scandals of Busan Savings Bank and Korea Post have drawn public attention to accounting fraud as a social issue. Corporate accounting scandal not only causes enormous damages to the stakeholders of the corporation, but also it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capital market. Many accounting systems have been improved and relevant laws have been enacted and amended to prevent accounting frauds. Nevertheless, accounting fraud is being blamed as a major factor that under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capital market until now.

There are three main causes of corporate accounting fraud; first,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designed to prevent accounting frauds is inadequate; second, legal punishment for accounting fraud is mild; and third, participants of the capital market lack awareness of accounting fraud. Lack of awareness about accounting fraud not only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ccounting fraud, but it also decreases the possibility of exposure of the accounting frau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foregoing reality, this study examines if university students who are the potential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 agree on the need for accounting fraud education to prevent accounting frauds by conducting a survey. Also, it analyzes the causes and the methods of accounting frauds b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materials on accounting scandals. In addition, it investigates how well the university students are aware about the methods of accounting irregularities.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for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by examining the signs of the accounting scandals and the methods of preventing accounting fraud.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confirm the need for accounting fraud education, but also to suggest specific details to be learned through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urvey, the university students agreed on the need for accounting fraud education, and they believed that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would be helpful in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lso,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willing to take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and they thought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would be helpful to them in finding an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ersity(Primary author), E-mail : leeng@hanyang.ac.kr

** Master and Ph.D. candidate, Department of Accounting, Hanyang University(Corresponding author),
E-mail : seokjin3@hanyang.ac.kr

accounting-related job. Lastly, the university students assumed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 would highly likely happen, but the accounting scandals would be unlikely exposed. This survey result implies that the fraud accounting education should not only teach the detailed methods of accounting irregularities, but also should teach how to prevent and uncover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

University students are the primary targets of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Therefore, examining how well the students are aware of corporate accounting scandals will be a useful material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direction of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suggested by this study can be u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university as reference material in making policies for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Based on this study, further discussion and additional studies are expected to be conducted for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the accounting fraud education.

Key Words : Accounting Fraud, Window Dressing, Accounting Fraud Education, Accounting Fraud Method

